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행복의 실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의 주요 원인은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입니다. 행복을 만들려고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부인하고 긍정을 추구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면서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꽃으로 덮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까지 속일 수 있어요. 불교는 긍정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나서 "무지한 존재의 본질은 고통이다. 그 원인은 실상을 모르고 자신과 현상에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이다. 고통을 인정하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일시적인 즐거움은 알지만 진정한 행복은 잘 몰라요. 매우 제한적이고 무력하게 하는 탐진치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미칠 정도로 불행하고 불안하고 우울하세요? 정상입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래요. 다행이지 않나요.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면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저절로 생겨요. 쉽게 봐줄 수 있고 잘해 주면 너무 감사해요.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뿌듯해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도 되요. 큰 안심이 생겨요. 인정과 받아들임,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안하신 길입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⑬ 무량산 자조차

역사 아픔 자줏빛 차싹으로 승화

어른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으면 꼭 떠오르는 차가 있는데, 바로 '무량산 자조차'입니다. 자조차는 차나무 줄기가 자주색으로 붉어서 자조차(紫條茶)라고 부르는데, 차나무 줄기가 왜 붉게 변했는지 차나무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과나무와 소년의 사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자라서 더 이상 사과나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와서 사과도 몽땅, 나뭇가지도 몽땅, 마지막엔 그루터기만 남기고 나무 자체를 몽땅 잘라갔는데도 사과나무는 소년을 위해 뭔가를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화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며 과연 나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묻고 또 물으며 나무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차나무의 역사에서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똑같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무량산 자조차

차나무의 원산지이며 오늘날에도 천년 고차수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운귀고원의 무량산(無量山)에 차나무를 사랑하고 차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족이라고 부르는 소수민족입니다. 이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북방유래설과 남방유래설 등 여러 설이 있지만 현재는 북방유래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족은 현대 중국어로 이족(彝族)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현대 중국 성립 전에 원래는 이족(夷族)이라고 썼었죠. 이족은 백이(白夷) 흑이(黑夷) 등 여러 갈래가 있는데 높은 산이나 절벽 위에 은신처를 마련해 모여 살았습니다. 이(夷)는 예로부터 한족이 우리민족을 지칭하는 글자이기도 했지요. 동이족(東夷族)이라고 하듯이요. 이족을 오늘날의 이(彝)로 개명한 사람은 마오쩌둥입니다. 이(彝)를 가만히 보면 중간에 쌀 미(米)도 있고 실 사(絲)도 있지요. 험준한 곳에 은거해 살다보니 근현대중국 사회에서 56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민족이 되었고, 마오쩌둥이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하라고 이(夷)을 이(彝)로 개명했다고 이족역사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족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산촌마다 가장 오래되고 멋진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제사도 지냈지요. 차나무를 신성시하는 마을, 소나무를 신성하는 마을, 대나무나 호롱박을 신성시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적 전통에서는 나무신앙이 특이한 일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다보면 특히 한족 집거지에는 나무신앙의 전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족이 사는 무량산에 천년 야생 차나무가 보존되어 온 것은 아마도 워낙 험난한 고산 지대라서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웠다는 점 외에, 나무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이족의 전통이 차나무를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중국에서 1950~1960년대에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대혁명 때에는 차가 부르주아 유산이라고 해서 차를 불태우기도 하고 차나무를 많이 훼손했습니다. 대약진운동 때에는 노동력집중 경제성장을 위해 실용성을 이유로 자연을 파헤쳤지요. 대약진운동의 광풍이 무량산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수종을 개량한다는 명분으로 무량산의 수백 년 고차수 군락지를 모조리 훼손하고, 사람들이 사는 농지 가까운 곳에 밀식차를 새로 심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고차수를 베어버리고 옥수수와 잡곡을 심기도 했습니다.

대대로 지켜온 수백 살이 넘은 차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이족들은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나무의 아픔은 더했습니다. 천 년 동안 찻잎을 나누어주며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 주었는데 어느 날 도끼와 톱을 들고 와 나무를 다 잘라버렸으니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장자(莊子) 우언에 쓰임이 있는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한다, 천수를 누리려면 무용(無用)의 나무가 되라고 했는데, 차나무들이 만일 찻잎을 피워내지 않는 무용의 나무가 되기로 결의를 한다면 사람들은 다시는 차를 마시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무량산 고차수는 인간이 훼손해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인고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잘려버린 고차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새로 난 찻잎 줄기들이 자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루터기가 된 나무들이 생명을 잉태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으면 줄기가 붉어져 변종이 된거예요. 자줏빛 줄기에는 차의 영양소 더하기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무량산 촌장의 말이 그때 찻잎이 피어날 때 향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산촌마을 전체가 차향으로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고산지대 몇 곳에서 찻잎이 붉은 차나무, 잎과 줄기가 모두 붉은 차나무가 발견되었고, 요즘은 인공적으로 잎과 줄기가 붉은 차나무를 번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과 역사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난 무량산 자조차, 특히 제가 소중히 여기는 차입니다.

무량산은 아름답고도 슬픈 산입니다. '무량산 자조차 2006'은 불사조가 불속에서 환생하듯이 새롭게 부활한 찻잎으로 만들었습니다. 건강하고 튼실한 찻잎과 줄기, 수색은 윤기 나는 황갈색으로 영롱합니다. 해발 2250m의 고산지대 운무 속에서 자라서 상쾌합니다. 보이생차의 은은하고 감미로운 맛이 15년의 세월 따라 더욱 두터워지고 향은 난향에서 밀향을 더해가며, 내포성이 좋아 9포를 우려도 변치 않고 몸이 따뜻하게 열감이 오르면서 부드럽고 묵직하게 아낌없는 사랑을 전해줍니다.

〈잇다it茶 대표〉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삼일선원
- 주 지 : 태안 (속명 : 임상도)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71번길 35-4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 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 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 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국내최초·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